

##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

이해준<sup>1)</sup> | 공주대학교 사학과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문화 수요층의 요구는 정보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과거와 같은 새로운 자료발굴이나 그에 대한 지적 우월감만으로는 지역문화 연구의 의의가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상 내용도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의 향유층도 과거와 같은 특수 계층 독점 경향에서 점차 일반화·교양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문화행정·문화정책의 기본 방향도 보다 광범한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과 가치교육보다는 '체험과 참여'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환이 모색되어가고 있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 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화현장에서 문화인들이 지녔던 권위·지적 과시는 시민 참여의 확대과정에서 점차 감소되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일방 논의도 이제는 시효가 지났다. 교육과 덕목 중시의 풍조도 체험과 비판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하면 충효와 예절교육, 한문강좌로 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안일함과 퇴역성, 경직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는 전통문화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수요자 요구와 수준 파악이 없고, 교육기법도 무시되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1) 공주사대, 서울대학원 졸업, 목포대 교수('8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90) 공주대 박물관장('95-'97), 한국역사민속학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01-'04) 역임 [현재] 공주대 교수,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부회장

### '지역 전통문화', 그 가치와 정체성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용이 있다. 재능도 각각이려니와, 스스로 강조하는 자신의 자랑거리들도 모두 다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역사나 지역문화에서 기대하는 기본적 당위성과 요구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와 지역 문화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문화는 지역민들로서는 자신들의 본전이고, 정서적인 고향이기도 하다. 만약에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문화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와 분위기에 필적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문화라고 보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거나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다. 나아가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반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을 충남지역민들 스스로 연구하고 가꾸어 챙기지 않으면, 남들은 아예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과거 충남지역에 살았던 선인들이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은 그 후예인 현대의 우리들 역시 별 볼일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충남지역민들의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지방의 문화정책에서 바랄 것

21세기는 신문화, 신지식, 그리고 정신문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충남의 문화 환경가치, 정신사적 가치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올바로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가지고 지방문화가 관리, 운영, 발전된다기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제한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정책 구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율과 분권

의 개념에 입각한 지방문화 발전의 자체 노력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 문화정책을 이야기하여 할 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 과연 누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가?
- 전문연구자는 어떠한 형태로 참여, 동원, 의사 전달하나?
- 이상과 현실(순위, 예산, 방법)의 갭은 어떻게 해소할까?
- 행정이 할 일, 연구자(연구기관)가 할 일, 시민이 할 일이 구분되나?

등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거의 제대로 점검되었던 것 같지 않다.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이 마련된 적이 없이 임기응변이 대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 수용 채널이나 지역민 의식 대변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경쟁력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남의 것 베끼기 식 구호와 사업이 결정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결정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기초적인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와 정리에 매우 소극적이고 투자도 적다는 사실이다. 필요성을 잘 모르거나 사실 관계의 오해가 몇몇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도 결국은 기초자료의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때문인데, 이 점을 연구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할 듯 싶다. 물론 이 경우도 분야 이기주의나 오랜 연구결과로 완벽한 정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도 일단은 기초자료의 정리와 조사과정 다음에나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느끼는 일반적 문화정책에서의 문제점은 교육과 홍보, 문화의식의 저변확대에 대한 노력을 무시, 방기하는 점이다. 문화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노력의 소산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학교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저열한 문화경쟁력은 과거 문화교육의 미흡에서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참여문화와 수요층의 기대부응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한 어느 지역이나 크게 보아서 대동소이하다. 물론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북의 예라든가, 문화재단을 설립 지원하는 경기도의 경우, 공공문화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의 경우 같은 특별한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충청남도

도 전통문화, 역사에 관련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진적으로 평가된다.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와 충남역사박물관의 전시계획은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문화 수요층의 요구는 정보화와 함께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같은 새로운 자료발굴이나, 지적 우월감만으로는 지역문화 연구의미가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상 내용이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과거 지역문화연구자들이 지녔던 권위·보수 성향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 및 자생적 문화단체들의 비평도 적지 않고, 전제된 것처럼 교육과 덕목 중시의 풍조도 체험과 비판으로 대체되어 이제는 객관과 명분, 시민의 동조가 없으면 그 先導力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들 문화수요층인 지역민들이 원하고 요망하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생의 교육적 필요라든가, 일반시민의 교양적 수준의 자료, 그런가하면 체험이나 이해이나의 문제 등으로 구체적 계층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지역별 문화통계(지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문화인력의 연계와 상생이 관건

미래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① 지역문화의 先導 기능을 담당할 주도집단이 형성될 것과 ② 그 방향을 확실하고 가능하게 할 자료뱅크와 씽크 탱크 기능이 점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인도 없고, 철학도 없이 방황하는 지역문화 활동, 분산·소모·중복적 문화활동을 총괄·조정·선도하는 협의기구가 분명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선되고 객관적인 지역문화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자료 뱅크), 문화의식을 선도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 인식과 가용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씽크 탱크). 그럴 때 지역문화 특성화는 구체화될 것이고, 이를 향유하고 지원하는 지역민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지역문화의 역량도 당연히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사실 '過去'의 지역문화와 '現在'의 지역문화는 천양지차이다. 여러 한계들도 없지 않아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현재의 조건 부족을 탓하는 지역문화 연구 제3세대 젊은 인력들에게서, 1세대나 2세대가 느꼈던 '관심과 비평에 대한 그

리움(?)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을 듯싶다. 그만큼 발전을 해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지역문화연구는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에 더하여 특성별, 내용별, 매체별, 수요층별로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접분야의 정보와 인력, 아이디어를 배워야만 한다. 지역특성의 종합적 해석을 위하여 타 학문분야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정보화·축제·관광·교육·창작예술 등등 자원활용 매체와 관련된 기초지식도 동원하여야 한다. 필자는 지역학이 바로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 강조하는 처지이지만,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 연구와 자원 활성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지역문화 운동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재 복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우리의 문화교육, 지역화 교육의 무책임과 역할 방기, 그리고 무 방향에 대하여 우려를 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과 의식은 일제의 식민교육과 서구적 가치관의 무분별한 혼입 속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할 문화교육의 큰 모습은, 나와 우리, 그리고 남의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존중하며 이해하는 의식,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높은 인간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와 같이 한국문화나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나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가치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 우리의 문화교육은 공동체적 문화 기반 속에서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즉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지는 문화교육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고 가르치는 가정교육도 있었다. 며느리는 시집의 새로운 가풍을 전수 받기 위한 모진 시련을 감내하여야 했고, 농사꾼들은 농사꾼대로 또 나무꾼도 그들 나름의 문화 전수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현대와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문화기반 위에서 다양한 문화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효용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서구식의 학교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전통적 문화교육의 모습은 점차 의미를 상실하여 갔고, 의미와 가치도 평가절하 되어 학교교육과 맞설 수 없는 무용지물처럼 되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보다 학교 밖의 문화교육이 오히려 더 싱싱하고 씩씩해야 할 듯싶다. 좀 격한 말이지만 그러다 보면 생각 있는 학교 교육이 결눈질을 하거나 참을 수 없어 제 길을 걸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여야 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 철저한 문화콘텐츠의 수집과 정리

21세기가 문화 경쟁시대이며, 바야흐로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으로 문화가 활용되는 시대가 강조된다. 그런가하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우리 주변을 맴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의식이 바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자신을 지키는 길'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철저히 하고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지역문화 특성화의 문제점은 ① 기초자료(컨텐츠)의 정리 노력 부족, ② 육성 아이템 선정과정의 객관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유기적 효용성과 경쟁력 확보 등등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 ①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되었나?
- ② 그리고 방향이 과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나?
- ③ 나아가 지역민들의 요구와 인식에 토대한 것인가?

등등에 적절한 답을 하도록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활용, 재생하려면 먼저 지역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기초 데이터(컨텐츠)의 분석과정에서 지역문화의 특수한 형성 조건과 배경, 지역성이 규명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토대한 문화의 발전비전도, 복원도, 미래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리의 대상들에 대한 마인드도 달라져야 한다. 문화재 이외에 지역 인물이나 정신, 학문, 민속, 인심과 같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특산물, 토속음식, 자연경관과 레저(전원, 휴양림, 백사장, 낚시터 등) 같은 자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형 자료(유적·유물·문서 등) 이외에 최근의 문학작품, 논문, 신문기사 등까지 포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같은 분야에 대한 색다른 의식,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현대문화사 같은 광범한 문화 소재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가 철저히 수집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물찾기식의 문화소재 발굴이나, 정책 개발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의 기초작업으로 지역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되며,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왕왕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그 까닭이다. 또 지역 정체성 확인보다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

를 엮으면서 포장하는 '무차별과 획일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과 같은 경향도 생기게 된다. 부연한다면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③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라는 악순환은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과거처럼 산발·분산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집중성과 종합성", "아이템 차별화"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 "특성화·차별화" 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초자료의 정리 문제와 아울러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정책들이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요즘은 부족하여 콘텐츠가 더 중시되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시급히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역문화 특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각 지역 문화원은 역사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다.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며 지역적 특성과 냄새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의 문화환경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를 무시한 획일화는 실패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며, 아마도 "특성화"가 가능하다면 바로 이러한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써 구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 경쟁일 것인데, 여기에서는 첫째가 해당 지역의 문화성격을 훼손하거나 굴절시키지 않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요자층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화가 H/W보다 S/W·C/W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정책이나 행정, 계획분야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초적 노력이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서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간의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수적

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지역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매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역 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목적별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선택된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에 따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같은 자원이라도 유형별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① 교육형 ② 관람형 ③ 체험형 ④ 레저형 ⑤ 복합형 등으로 구분되며, 강한 문화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은 다변화되어야 한다.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 21세기 지역문화와 '살아있는 충남문화'

지역문화는 각기 독특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그에 따른 문화상들을 종합적 결과물로써 간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 생활문화를 정리함에 있어서 지역문화는 '문화의 기본 단위'이자, '실질적 생활문화로서 다양성의 구현장'이었다. 이 다양한 사회관계가 구조화되는 경제·사회·문화적 지식들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의 기반이고 지식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전혀 상반되는 화두가 한 곳에서 만나相生하고 갈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동안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적절히 대변한 구호였다.

이제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은 항상 아주 쉽고, 가까운 곳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인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정서와 문화를 되살려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하여야 소위 말하는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다.

특히나 인간과 환경, 지식과 정보, 정신과 문화의 통합이 신세기의 주요 화두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 01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

마 없을 듯싶다. 충남문화의 저변에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푸른 충남' '한국 속의 작은 한국' '한국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곳'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한국' 등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문화자원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이를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기만 한다면 그 경쟁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 이해준 지역사관련 발표 논저

- 1987 「향토사연구의 현안과제」 『한국학논총』 1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 정리」 『박물관학연구』 2집, 대전보건대 박물관학연구소
- 1997 「박물관의 현황과 문화교육정책」 『교육철학』 제8집, 교육철학회
- 1997 「지역사연구의 과제와 방향」 『웅진문화』 10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1998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공동연구)
- 1998 「한국지역문화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1998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집, 역사문화학회
- 1998 「지역교재 편찬의 현황과 과제」 『향토문화』 10집, 한국향토사 전국협의회
- 1998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백제문화』 27집, 백제문화연구소
- 1998 「향토사교육의 동향과 과제」 『역사교육』 67집, 역사교육연구회
- 2001 「2001 지역문화 현안과 대안」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4인 공동)
- 2001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체계사론」 『한국사론』 32, 국사편찬위원회
-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 설립과 운영방향」 『호서사학』 30, 호서사학회
- 2001 「근 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웅진문화』 14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2002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52차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2003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안동대민속학연구소